

광주 우치동물원 '생태형 동물원'으로 거듭난다

市, 내년부터 3년간 36억 투입 시설 개선 쇠창살 대신 투명 유리...우리도 대폭 확장

광주우치동물원이 사람을 위한 동물원에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형 동물원'으로 거듭난다. 광주동물원 측은 기존 쇠창살과 콘크리트 바닥으로 지어진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리를 철거한 뒤 각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동물친화적인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시설 개선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관람객들은 동물원에서 철창 안에 갇힌 동물을 바라보는 불편한 죄의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동물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예산 36억원 을 투입, 생태와 동물복지를 결합한 동물원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광주동물원은 지난 1992년 5월4일 전신인 사직동물원에서 북구 생용동 우치공원(12만1천302㎡·3만6천693.9평)으로 부지를 옮겼으나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등으로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리 등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시는 각 동물의 서식 환경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동물원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0억~14억원을 투입, 사슴사 리뉴얼, 동물 병원 증축 및 의료장비 구축 등을 진행한다. 동물원은 예산 5천만원을 들여 면적 1

천350㎡의 사슴사를 복도한 뒤 그늘막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신·출산을 위한 별도의 격리 공간도 마련한다. 공사는 면적이 2천910㎡인데, 예산 8억4천만원을 투입해 콘크리트 바닥의 방사장을 흙바닥으로 교체한 뒤 도장·수영장 등을 만들어 행동 풍부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면적 1천㎡의 맹금류사는 맹금류가 활강할 수 있는 방사장이 설치된다. 비좁은 쇠창살 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동물 병원에는 X-ray·초음파·임상

병리·수술장비 등을 갖춘 뒤 소형 동물에 대한 치료·수술 등 진료를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할 방침이다. 특히 옛 원숭이사를 철거한 뒤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편히 쉬면서 놀 수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동물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차적으로 예산 93억원을 들여 가족동물사 및 열대조류관 증축·원숭이사 및 표범사 개축 등 10곳에 대한 단위 사업별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광주동물원 관계자는 "호반권을 대표

하는 동물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관람객 모두가 만족하는 동물원으로 탈바꿈하는 게 목표"라면서 "단순히 신기한 동물을 가둬 놓고 전시관람하는 동물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동물과 인간이 교감하고 특히 생명 존중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적 12만1천302㎡ 너비의 우치 동물원에는 106종 676마리의 동물이 생활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44종 112마리에 이르고, 천연기념물도 4종 22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국제농업박람회 온라인 예매 서비스

예전남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나주에서 열리는 '2021 국제농업박람회'의 입장권 구입과 관람일 예약을 위한 '온라인 예매·등록 서비스'를 공식 누리집에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운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관람객 수를 평일·주말로 분산해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입장권 예매 또는 사전 예약을 한 관람객은 '2021 국제농업박람회 누리집'(www.iae.or.kr)에 마련된 '온라인 예매·등록 서비스'에서 방문 일정을 예약하면 대기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입장권 구매 땐 관람료 2천원이 할인된다. /임후성기자



여성희망창작소 개소 광주 동구는 12일 오전 여성들의 역량 강화에 새로운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될 '여성희망창작소'를 개소했다. 금남로 4가에 자리한 여성희망창작소는 사무실과 커뮤니티실, 아이디어 공유·창업마중물·돌봄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개소식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 등 내빈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광주동구 제공>

광주시 '청년교통수당드림' 추가모집

광주시는 12일 구직 활동과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한 '청년교통수당드림' 2차 사업 참여자 948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은 취업 준비와 생활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교통비 비용 부담 경감과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6천600명의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왔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4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8일부터 24일까지 청년교통수당 드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달 5일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대상자는 30만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전용 카드를 지원받아 전국 시내버스·고속버스·지하철·KTX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 내에서는 택시 이용도 가능하다. /이종행기자

전남도립대, 모든 신입생에 전액 장학금

내년 1학기부터...타지역 인재 확보 등 지역발전 동력 기대

내년 1학기부터 전남도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12일 전남도립대에 따르면 2022학년부터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을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입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전남도립대는 지난 2018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거나 도내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지역 제한을 없애고 전남도립대에 입학하는 전국 모든 고졸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키로 변경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립대 측은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다른 지역의 인재를 확보하는 등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생활관(기숙사)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입사를 허용하는 한편 무료 통학버스를 운행해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전공 맞춤형 산업체 현장견학', '취·창업캠프', '미니 채용박람회', 학생과 지도교수가 함께 하는 '기업체 동행 면접' 등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박병호 총장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에 들어와 꿈을 펼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대학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정주형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립대는 다음 달 8일부터 2일까지 수시 2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경찰경호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항공호텔관광과, 드론기계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인공지능드론학과, 식품생명과학과,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미래자동차학과, 토목환경과(주/야), 한옥건축과, 보건의료과, 호텔조리제빵과, 공연음악과, 도예차문화과, 뷰티아트과, 산업디자인과 등 총 18개 학과다. /임후성기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15일 팡파르

골든벨·조리법 등 온라인 프로그램 '다채'

전남도는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유튜브 채널 '남도음식문화큰잔치TV'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제2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선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유튜브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TV' 채널을 이미 개설했으며 22개 시·군 대표음식 조리법(레시피) 등 축제와 관련된 영상을 미리 감상할 수 있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막식과 남도 추수한마당 주제영상 및 국제화 비전 선포식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남도음식을 주제로 펼쳐지는 퀴즈대결 '남도음식 골든벨'은 푸짐한 상품이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남도음식푸드 스타일링'은 요리법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법을 보여준다. /임후성기자

이외에도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 제작한 '남도음식뮤직비디오'와 여수 밤바다 감성을 자극하는 '버스킹', 김영록 도지사·국민의힘 김수미와 함께 배우는 명인의 요리비법 '남도음식 요리교실'은 올 가을을 애뜻하고 유쾌하게 만들어 줄 전망이다. 국민 안내양 김정연과 떠나는 '랜선여행 1박2일'에선 남도의 자연과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동네가게 함께가게'에선 주변의 착한 가게를 만날 수 있다. 온라인 관람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그중 유명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 우리동네 '좋지만 마켓'(N쇼핑)에서는 남도 특산물과 여수 10미(미)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재미와 감동을 담은 온라인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 '남도음식문화큰잔치TV'를 통해 전 세계로 영상이 송출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해 영어자막도 지원한다. /임후성기자

광주시, 국지도49호선 도로환경 정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12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국지도49호선(빛가람정성로) 광주 관리 구간(남구 승촌동-광산구 오산동) 23km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환경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로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뒤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는 29일부터 3주간 덤프트럭·굴삭기·스키드러 등 장비 7대와 도로 보수원 25명의 인력을 동원해 도로포장 파손·요철 및 포트홀

보수, 도로변 잡목 제거와 풀 베기 등을 진행한다. 또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쓰레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플래카드도 제작·설치한다. 시는 도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양은열 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은 "일제정비 기간에 이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되도록 서행해 작업자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늘푸른수목장의 장점 ■

- 1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2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3 재계약이 필요없이 영구사용 가능합니다.
- 4 온 가족이 산산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푸른수목장

수목장·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2) 412-6183